

# 教育에 있어서 圖書館이

## 찾아하는 位置

鄭 泰 時

세계 교직원단체 총연합(W.C.O.T.P.) 사무총장 「윌리엄 G. 카」박사가 말하기를 “교원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under paid) 불행한 일이지만 교육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under value) 더욱 더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교육이 消費에 지나지 않아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진 국가에서는 교육을 投資라고 규정하고 효율적인 교육투자 없이는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으로 되고있다. 그래서 WCOTP는 금년의 연구주제로 “교육을 통한 기회 균등” 내년의 연구 주제로 “교육 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교원 단체의 적능”을 채택하고 있다. 이 두 연구 주제는 다 교육을 투자로 간주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에게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타고난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발휘 할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체 인간은 모든 동물중에서 가장 개성이 강하고 따라서 그 成長에 있어서 개인차가 현저한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에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나 기계적인 진급제도는 모든 어린이에게 각기 개인차에 적응하는 능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개인별 진급제 학교(Non-grade School)가 1956년 부터 생기었는데 61년 현재 56년 발족 당시의 2배인 12%의 학교가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산수를 중심으로 해서 능력별 반 편성을 하고있는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46% 중등학교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소정의 학점을 따면 대학 2학년에 편입이 될 수있는 제도도 열려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중 진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교과목 중에서 영어 사회 체육을 제1 그룹으로 하여 학년별로 진급을 시키는 반면 수학 이과 예능은 제2그룹으로 하여 개인별로 진급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종합고등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진학 과정과 각종 실업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오전대 새로운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차에 적응한 교육 과정의 다양성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풍부한 각종 교과서의 편찬, 전문화된 교사의 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 올 때에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의 타고난 소질을 충분히 개발 하기에는 너무나 획일적이요 기계적이라는 것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서는 오직 학교 도서관의 설치나 강화 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학교 도서관에 대한 여러가지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림의 떡과 같은 상태인 것은 답답한 일이다.

교육이 경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여건이 학교 도서관의 활발한 운영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大韓教育聯合會事務總長)